

3차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운전자 부담 여전

2차 가격으로 동결 기름값 상승세 둔화
광주·전남 휘발유값 상승폭 4.5일 수준
평균 1천984원·1천986원...2천원대 위협

중동 정세 불안으로 급등하던 지역 기름값이 정부의 3차 최고가격제 시행 영향으로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가격 자체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체감 부담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지역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1천984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10일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이후 가격 흐름을 보면 10일 1천979.9원, 11일 1천982.8원으로 사흘간 총 4.1원 상승하는 데 그쳤다.

경유 가격 역시 같은 기간 1천974.8원에서 1천977.7원, 1천979.9원으로 4.2원 오르며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2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지난달 27일을 전후로는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실시 셋째 날인 12일 전국 주유소 평균 유가 상승세가 대폭 둔화한 가운데 서울 경유 가격은 전날 대비 보험세를 보였다.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값은 1당 1천982.3원으로 전날보다 0.7원 올랐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주유소 모습. /연합뉴스

당시 광주 휘발유 가격은 1천836.8원에서 다음 날 1천854.4원, 29일 1천858.9원, 30일 1천872.1원으로 단기간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였다. 전남 지역 역시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남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1당 1천986원으로, 지난 10일 1천980.9원에서 11일 1천984.5원으로 5.1원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1천976.2원에서 1천979.6원, 1천981.9원으로 4.8원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 갔지만 이전과 같은 급격한 인상 흐름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3차 최고가격제 시행 효과로 분석된다. 2차 최고가격제 당시 휘발유가 1당 1천934원, 경유 1천923원, 등유 1천530원이 3차에서도 동결되며 가격 상승세를 일정 부분 제어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부담은 여전히 큰 상황이다. 광주와 전남 모두 휘발유 가격이 2천원에 근접한 수준으로 유류비 상승이 물류비와 교통비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전반적인 생활 비도 늘어나고 있다.

국제유가는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10일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반영되며 유가가 소폭 하락했다. 6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 대비 0.72달러 내린 배럴당 95.20달러에 거래를 마쳤고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역시 1.30달러 하락한 배럴당 96.57달러로 마감했다.

다만 통상 국제유가 변동이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향후 중동 정세와 글로벌 유가 흐름에 따라 국내 기름값이 재차 변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안태호 기자

“국가기간 전력망, 정부 재정 투입으로 속도 높여야”

광주상의, 총리실·환경부에 정책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지난 10일 국가기간 전력망 병목 해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송·변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 필요성을 담은 정책 건의서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상의는 건의서를 통해 최근 전력 정책의 핵심 과제가 전력 생산 확대보다 전력을 필요한 곳에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송·변전망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상황에서 송·변전망 부족과 건설 지연이 국가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은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계통 포화과 송전망 부족으로 발전 출력 제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반대로 수도권에서는 산업단지과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시기를 맞추지 못해 산업 투자 지연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상의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국가 중심의 전력망 투자 구조를 지적했다. 현

재 송·변전망 확충 투자는 사실상 한국전력공사가 담당하고 있으나, 한전의 누적 부채 부담으로 인해 공기업 단독으로는 대규모 전력망 투자를 지속적으로 감당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상의는 주요 선진국들이 전력망을 국가 전략 인프라로 인식하고 정부 재정과 제도를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전력망 현대화와 송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유럽 연합(EU) 역시 에너지 전환 전략인 REPowerEU를 통해 전력망 확충을 핵심 정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광주상의는 정부에 송·변전망을 도로와 철도와 같은 국가 기간 인프라 관점에서 관리하고, 모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사업에 국가 재정을 일정 비율 이상 투입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국가 재정을 중심으로 하되 민간 참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투자 구조를 다변화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전력망 확충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의의 관계자는 “전력망은 단순한 전력 설비가 아니라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과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적시에 공급될 수 있는 전력망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전환과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이번 건의를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첨단산업 성장, 지역균형 발전 등 국가 핵심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력망 확충 정책 논의가 본격화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임재만 기자



조달청 ‘혁신제품’ 신규 지정에 지역 2개 기업 선정

대우컴프레서·그린산업개발

시범구매 참여·홍보 등 혜택

광주지방조달청은 12일 “지난 10일 ‘2026년 제1차 혁신제품’으로 광주·전남지역의 2개 제품이 신규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주)대우컴프레서의 ‘저온제습 기술을 적용한 다중이용시설용 공기살균기’ ▲주식회사 그린산업개발의 ‘친환경 목질계 데크’로, 혁신성, 공공성, 시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선정됐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기술력은 있으나 공공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제품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업의 초기 판로 개척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시범구매 사업 참여, 홍보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안태호 기자

서창농협, 영농회 농기계 100여대 지원

분무·살포기 등 구입비 3천800만원

서창농협은 12일 “지난 10일 서창지점에서 ‘2026년 영농회 농기계 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서창농협 임원들과 영농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고 서창농협은 분무기 및 살포기, 농산물 건조기,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 예취기, 트랙터 부속작업기, 농용톱 등 103대의 농기계 구입에 3천800만원을 지원했다.

서창농협은 매년 조합원 개인별로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 받아 지원하는 개별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추진해 조합원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총 346대의 농기계와 1억4천만원의 지원을 바 있다.

김명열 서창농협 조합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지원 사업이 영농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안태호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해남매일시장

해남읍5일시장

망골송지장

남창5일시장

좌일5일시장

남리5일시장

우수영5일시장

화원5일시장

◎ 장이 서는 날 ◎

1. **해남매일시장** : 상설
2. **해남읍5일시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3. **망골송지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4. **남창5일시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5. **좌일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6. **남리5일시장** : 매월 3일, 8일로 끝나는 날
7. **우수영5일시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8. **화원5일시장** : 매월 5일, 0일로 끝나는 날

맛(맛 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美(아름다울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迷(이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尾(글 미)** 해남의 땅골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송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주최 : **광주매일신문·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광고문의 : 062)650-2099